

現代社會에서 看護員의 역할은 증차되다. 인류의 건강과 복지증진의 향상을 위한 전문직 간호원으로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현장에서 생동감 있는 우리 회원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자 이 난을 꾸며 학교사회, 산업장, 병원사회, 군사회로 이어져 나간다.

<편집자 주>

산업장에서 (I)

구 진 회

(유공 울산정유공장 부속의원)

아직도 햇빛 어둠이 대지위를 조용히 뒤덮고 있는 시각에 대문을 나서 버스정류소를 향해 발길을 옮긴다. 6시 30분 이동글썩이타 불리우는 통근버스에 몸을 실으던 이때부터 나의 하루 일과는 시작된다.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맘속으로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공장 정문이다.

「간호원은 이렇게 일한다」는 주제하에 글을 쓸려니 본회 회원들에 대한 충구스러움이 앞선다. 유공 부속의원 간호원의 하는 일이 과연 보건관리요원로서의 본분을 어느 선까지 실천했었느냐고 스스로를 향해 반문해 보면 결코 시원스런 대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족하나마 나의 경험과 보고 느낀 바를 본협회지를 통해 알리고져 한다.

내가 유공에 보건관리요원으로서 발을 들여놓은지 9년 2개월째니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입사 당시 나는 보건관리요원이란 단어도 몰랐고 그 업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지상태로 다만 아는 것이라고는 간호원에 대한 대우개선이 병원보다는 좀 앞서 있다는 정도에 불과했었다.

입사 당시의 기억을 잠깐 더듬어본다. 1969년 10월 10일 공업도시 울산이라기에 시대가 온통 공장으로 이어져 있으리라 상상하면서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한 울산역 대합실을 찾았다. 그런데 역이래야 초라한 일본식 건물이었고 역앞 광장에는 마칠 장날(당시 닷새마다 장이 섰음)이라 과일과 채소만이 잔뜩 쌓여 있고 공장은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 공업도시 울산에 온 것이 아니라 평범한 농촌에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오늘의 울산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공업도시임에는 틀림이 없다. 한 도시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산업체가 60여개소에 달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앞서 세워진 곳이 내가 근무하는 울산정유공장(유공)이다.

여기서 나의 근무처를 소개한다. 공장 총부처 115만평, 1일 원유 처리능력 28만바렐(1바렐은 약 0.8드렘), 생산제품은 유류 16종, 석유화학기초원료 7종, 윤활유 200여종이고 1962년 10월 13일에 설립되어 1964년 4월 1일에 처음 가동되었고 부속의원도 이때 개설허가를 받았었다. 현재 총 근로자수는 1978년 11월 1일 현재 1,019명이며 부속의원의 구성인원은 전임보건관리자 1명, 축탁보건관리자 1명, 보건관리요원으로는 간호원 3명, 축탁 X선 기사 1명으로 총 6명이며 간호원은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인원구성면에 있어서 본회에 대해 다소나마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부속의원이 개설된 이래 간호보조

원은 채용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현재도 가끔 보조원 채용 문제가 대두되고 한다. 이유허 인력 업무가 벅차니 보조원을 채용해서 업무량을 감소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한편 생각하던 고압고 편리한 점도 없진 않지만 나는 극구 반대한다. 산업장의 효율적인 보건관리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요청되는 현 시점에서 산업장의 보건관리체제가 근본적으로 개선 확대 실시되어야 함은 당연과제이며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산업장의 생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로서 보건관리요원의 자질과 전문성이 절대로 배제될 수 없는 입장에서 찬성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간호원이 3명이긴 하지만 사실상의 나의 업무는 벅하다. 근로기준법에는 월근무 총 시간이 20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 산업장에서는 월 182시간을 기준하기에 간호원 1명에 대한 월휴무는 7~8일이다. 월 8일의 휴무로 기준하여 생리휴일 하루를 추가하면 간호원 1인당 월 9일이 휴무에 해당하니 결국 남는 3일만이 주간에 2명의 간호원이 함께 근무하게 되므로 간호원이라기 보다는 행정요원에 더 가까운 정도로 넓은 범위의 업무를 맡은 나로서는 하루일과가 바쁜데 당연한 것이다. 그럴 유공의 보건관리요원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대표적인 것만 몇가지 소개한다. 먼저 연중 행사로서는 1. 일년의 예산책정(부속의원 운영 및 투자에 관한 것) 2. 년 2회의 일반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 보고와 사후처리 3. 년 1회의 특수 건강진단 실시(근로 보건관리 규정 제10조에는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노동청에서는 년 1회에 대한 보고만 받고 있음) 4. 년 3~4회의 임시 건강진단 실시 5. 년 1회의 작업환경 측정(공장전 부서) 6. 년 2회의 구충제 지급 7. 공장 전역에 걸친 방역 실시(매년 5월~10월) 8. 예방접종 실시 9.약품 및 물품의 구입, 소모, 재고에 대한 관리(월별) 등이며, 일상업무로서는 1. 환자 치료(투약, 응급처치 포함) 2. 건강상담 3. 채용건강진단 실시(년 400명 전후) 4. 작업환경 및 현장에 비치된 구급함 점검(45개소에 구급함이 비치되어 있음) 5. 질병으로 인한 결근 현황

과약 및 통계표 작성 6. 식당 및 휴게소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 7. 가족계획 상담 8. 각종 공문서 접수 및 발송 9.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 기록 및 비치 10. 일반적인 행정업무(약품 소모에 대한 기록 포함) 등이다.

각 산업장에서 보건관리요원의 기본 업무가 무엇인가는 근로 보건관리 규정 제 6조의 보건관리자 직무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고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 기본 업무보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깊게 생각할 보아야 할 것은 보건관리요원의 자격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1969년 6월 12일 보건사회부령 제284호로 정해진 「근로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 1조 [보건관리요원의 자격]; 근로보건관리규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요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자격증을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의료업자 다만 환의사를 제외한다. 2.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기타 국민학교 이상의 졸업자로서 종합병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또는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위생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되어 있다. 또한 근로보건관리규정 제 3조의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보건관리자는 의사로서 근로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하며 보건관리요원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로 되어 있다. 이상의 규정으로 명시된 자격과 실질적인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보기로 하자. 한 마디로 이 규정 자체가 모순성이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의사에 국한시켰다면 관리요원으로서의 자격에서는 의사를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어느 의사가 보건관리요원으로서의 취업을 원하겠는가 둘째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 되어 있으니 대부분의 산업장에서 일반 경리사원이나 타이피스트가 보건관리업무를 겸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건관리업무는 소의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아무리 실무 경험이 5년 이상 있다 하더라도 국민학교 졸업자로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건강문제를 잘 관리할 수 있겠는가.

위의 규정은 관계 당국에서도 모순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머지않아 검토·수정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수정될 것인가가 문제다. 본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인지는 몰라도 자격의 범위를 간호원과 의료기사에 국한시키길 원한다. 이것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한편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본다. 현재 산업장에 보건관리요원으로서 취업해 있는 간호원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그리고 본회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일치될 때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가정적인 예를 들어 본다. 서류상으로 보건관리요원이라 명시해 놓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을 둔 산업장과 보건관리업무에 전력을 다하는 요원이 있는 산업장을 대상으로 수년이 경과한 후 이 두 산업장의 근로자 건강상태를 비교한다면 그 차이는 현저하게 나타나리라. 만일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보건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의 일부도 불필요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먼 후일에 가서는 근로자 자신은 물론 행정 당국이나 경영주측에서도 보건관리요원의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보건관리요원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잘 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여러가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첫째 경영주측에서 보건관리요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하며 보건관리요원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산업체는 극소수에 달한다. 둘째 현재의 규정상에 명시된 인원으로는 실질적인 보건관리업무 수행상 부족된다. 근로보건관리규정 제5조에는 “보건관리요원은 주 1회 이상 당해 사업장을 순시하여 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보건상 유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를 하거나 적당한 예방처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1명의 요원이 있는 산업장의 경우 작업현장을 점검하려면 근무처는 비워 두어야 하며 또한 내가 속해 있는 산업장의 경우 현장을 다 돌아보려면 작업환경측정은 재쳐놓고 우선 시야에 들어 오는 것만 점검해도 승용차를 이용할 때 일일 근무 8시간이 모두 소요되거나 사

실 월 3~4회의 사업장 순시도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행정당국, 기업주, 요원, 근로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건강관리에 힘써야 함은 물론이지만 대부분의 산업체가 소기업이므로 형식에 치중하기 쉬운 점 등이다.

이왕에 보건관리 전반에 걸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으니 한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로 하자. 보건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수없이 많지만 모두 생략하고 가장 중요하면서도 소홀히 다루는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에 대해 나 자신이 겪은 바와 대다수의 산업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을 이 소중한 기회에 꼭 알리고 싶다. 현재 보건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으로서 자신이 소속해 있는 산업장의 경우 특수 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 왔던가를 다시 한번 돌아켜 보자. 특수 건강진단이라 함은 먼저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부서를 선정, 그 부서에 대해 작업환경을 측정 한 후 그 결과와 허용한계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하는 것임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는 작업환경 측정을 어디에 의뢰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잘못 판단하면 실수를 빚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어디라고 지적할 필요성까지는 없지만 어느 의료팀에서는 작업환경 측정을 무료로 봉사하겠다는 반 공문 형식의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협조의 글을 보내온다 아예 측정에 정일까지 명시되어 있으니 기업주 측에서는 반겨 맞이한다. 그러나 그 의료팀의 작업환경 측정 방법 또한 묘하다. 3~4명이 기구 몇가지를 승용차에 싣고 산업장의 큰 길을 대충 한 바퀴 돌고는 이른바 소문난 유해부서란 곳에서 하차하여 간단히 몇가지를 측정하고는 다른 산업장으로 떠나니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두시간 정도다. 그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마다 한결 같은 내용의 공문이 다시 접수된다. “귀 산업장에서 작업환경 측정에 적극 협조해 주어서 고맙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는 이러하니 어느날 어디로 특수 건강진단 실시 대상자를 보내달라”는 것이다. 이 고마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판단은 요원 각자에게 맡기고 참고로 우

리 산업장의 경우를 간단히 소개하니 비교해 보길 바란다. 작업 환경측정을 실제 해 보았다면 알 수 있겠지만 무척이도 힘든 작업이다. 나는 무료봉사를 사양하고 예산에 책정된 범위내에서 보 교수의 추천을 받아 다른 곳에 작업 환경 측정을 의뢰했었다. 나의 의뢰를 받아준 의료팀에서 3명의 인원이 동원되고 나역시 한 팀이 되어 일일 8시간씩 4일에 걸쳐 힘든 임무를 완수했다. 그러니 그 무료봉사팀은 8시간 작업으로 모든 측정을 끝냈는데 우리는 총 128시간이 걸렸으니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은 덧붙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연작업 시간수로 환산한 것임). 그뿐 아니라 어떤 의료팀에서는 산업장과 상의해서 건강 진단 결과표를 사실과는 다르게 작성한 예도 있다. 이유는 유소견자가 많으면 산업장의 입장이 난처해 지기 때문이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남의 잘못을 캐내어 보자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 우리 요원은 모든 것을 바로 알고 맡은 업무에 충실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예를 든 것이다.

남긴 업적은 빛을 발하지 못했더라도 숨겨진 한층이의 백합처럼 다소곳이 고개 숙인채 오늘도 묵묵히 일만 하는 우리 요원들, 환자는 물론

이며 산업장의 전 근로자에 대한 건강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머지않아 그 결실을 확인하게 되리라. 내가 속한 산업장의 근로자는 모두가 나의 가족이요, 환자의 고통은 바로 나의 고통이라 여기며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다면 결국은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리라 믿는다.

언제 어떤 종류의 직업병이 우리를 허칠지 알 수 없는 위험속에 살고 있지만 근로자와 나 사이에 대화의 문이 열리고 온정의 손길이 펼쳐질 때엔 벽찬 업무라도 기쁜 맘으로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에 생산 능률이 오르고 산업 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그래서 나는 오늘도 몇알의 약 대신 따뜻한 차 한잔을 권하고 한 접시의 과일을 대접한다. 병원이 아닌 산업장만이 가질 수 있는 이 흐뭇한 생활 속에서 내 나름 대로의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항상 즐겁다.

하고픈 말 다 하고 쓰고 싶은 글 다 쓰려면 끝이 없을 것 같지만 지면이 제한되어 있으니 더 쓸 수가 없다. 이상은 나의 보건관리요원 생활 10년중의 일부이긴 하지만 동료들께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아울러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본회측에 진심으로 감사한 맘 전하며 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근간안내>

어린이 간호의 원리와 실제

한정석 · 심치정 · 오가실 편저

대한간호협회 출판부